

# 대대적 하수관로 정비 본격화

### 순창군, 86억원 투입 2026년까지 1읍 3면 6개 마을 하수관로 전면 정비

순창군이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86억(국비 60억, 군비 26억)을 투입해 2026년까지 순창읍 백야마을을 비롯해 인계면 동촌마을, 유등면 건곡·학촌마을, 풍산면 상촌·죽전마을 등 1읍 3면 6개 마을 하수관로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풍산면 상촌마을을 시작으로 1차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하수관로 2.6km 설치와 81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사업에는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어지는 잔여 구간 공사에는 3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4.38km 구간의 관로 매설과 199가구의 배수설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특히 우천 시 배수 문제와 악취 발생 등 기존 하수처리 시설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단순한 하수관로 설치를 넘어 오수와 우수를 분리 처리하는 현대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욕실, 주방, 화장실의 오수와 마당, 지붕

등의 우수를 분류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심진강 수질 보호라는 환경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순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관련 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 방문

### 상습 침수지역 피해 대비 만전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달 30일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인 오수면 대정리, 둔기리, 용두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1년~2025년에 걸쳐 총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해 배수문 2개소, 용배수로 연장 6.1km 정비 등 전체 101.9ha 면적을 배수개선하는 사업이다.

심 군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며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달 30일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인 오수면 대정리, 둔기리, 용두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배수 불량으로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의 영농환경 개선으로 벼 생육환경이 좋아지면 농가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신속히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다가오는 내년도 집중호우, 태풍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산불방지 비상체계 구축

남원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4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분청 및 20개 읍면동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업무를 추진한다.

이는 등산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천왕봉의 6개산(5,801ha)과 고리봉 등 등산로 5개구간(18km)을 지정해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한다.



또한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산림연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인력(산상, 순찰) 123명을 산림연접지 및 취약지역 등에 집중 배치, 대산면 수덕리에는 산불헬기를 배치하여 계도 및 산불방지 투입을 위한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남원시 산림복지과 안길재 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산림연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를 당부하며, 부주의로 인한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일 캠벨포도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 '캠벨포도' 캐나다 첫 수출

### 남원시, 수출 기념식 가져... 농가 소득증대 기여

남원시는 지난 1일 캠벨포도 수출 기념식을 가졌으며, 기념식에는 남원시 원예산업과장, 전북농협 본부장, 농협 남원시지부장, 지리산농협조합장,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지리산포도생산회장, 캐나다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원했다.

남원시와 지리산농협,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인 포도(캠벨, 사인머스켓) 유통과 판매망 다양화를 위해 홍콩, 베트남 바이어와 수출협상을 진행하여 8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출하였으며, 이번에는 남원 지리산지역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캐나다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되어 캐나다로 첫 수출하게 된 것이다.

수출은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

애인' 상표로 수출하기로 협의하고, 산지유통센터에서 6.4톤(1,600박스/4kg)을 공동 선별해 11월 1일 사인머스켓 수출 선적식을 가졌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홍콩, 베트남뿐만 아니라 캐나다로의 판매 다각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번 수출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다, 신뢰와 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바이어들과 교류해 온 결과이다.

남원시에서는 올해 700여농가에서 포도 373ha를 재배해 6,000여톤이 생산될 예정으로, 산지유통센터에 최신편별 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원유통 등 우리나라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캐나다, 홍콩, 베트남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고품질 농특산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11월 한 달간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순창군이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를 11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류상품권 판매 중단을 실시하기 전 기존 지류상품권 이용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11월 한 달 동안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구매 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어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이 기존 선할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후 캐시백 제도는 상품권 사용 시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포인트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구매 시점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순창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 '우수'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서 및 2023년 실적서를 평가, 전국에서 남원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상은 지난 1일 대전 ICC컨벤션에서 열린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 예방 사업 합동 설명회'에서 이뤄졌다.

남원시는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성인 대상 비만예방교실 △노인 대상 방문 집중 영양관리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의 식생활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영양표시 활용 안내 스티커 제작·게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및 영양 정보 확인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영양표시 활용률이 2023년 86.9%로 전년 대비 5%가량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광한루원 내 준설사업 등 진행

남원시는 광한루원 연못에 쌓인 낙엽과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및 수질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국비를 확보해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1월 초에 시행하여 11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광한루원 내 준설사업뿐만 아니라 초가 이영엇기와 전디식재 사업도 진행, 준공 예정인 오는 11월 20일까지 광한루원을 무료 개방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양과 잉어와 같은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예정이며, 이들 생물의 건강한 서식지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